

# 1950년대 이후 장덕조 대중연애소설의 변화와 관습

- 『격랑』(1957)을 중심으로

진선영\*

## 목차

1. 들어가며
2. 한국전쟁기 장덕조 소설의 변화와 위상
3. 영리(伶俐)한 사랑과 격랑의 교훈, 합리적 여성상의 건설
4. 물질적 가치의 옹호와 보수주의로의 회귀
5. 패트론과 아프레의 시대성, 전환기 사회의 재현
6. 나오며

### <국문초록>

본고는 한국전쟁기 이후 장덕조 대중연애소설의 대표성을 띠는 『격랑』을 중심으로 장덕조 소설의 변화 양상과 ‘연애’를 통해 드러나는 작가의 시대의식을 고찰해 보았다. 이 시기 발표한 대중연애소설의 대부분이 자유연애, 미국식 문물과 사상의 유입을 통해 전근대성과 근대성의 혼성을 재현한다고 볼 때 이러한 사회문화적 코드는 한국사회의 변화와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가장 앞서 보여주는 것이 주인공의 변화이다. 한은주는 순수함과 도덕적인 측면에서 전통적인 연애소설의 여주인공으로 손색이 없지만 사랑에 있어 현실적 ‘총명함’을 우선한다. 자신의 위치(여대생-가장)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똑똑함과 자기 건설의 자양이 될 수 있는 사랑을 선택하기 위해 열정을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다스린다. 이는 낭만적 사랑에 함몰되지 않는 현실주의적이며 합리적인 삶의 태도이다. 박창렬은 전통적인 연애소설의 관습에 따르면 남근적 인물의 전형에 위치하지만 실상 마음이 깨끗하고 추한 것을 싫어하는 중년의 미학자로서 1950년대 장덕조 연애소설의 새로운 남성주인공형이다. 가난의 고통을 견디면서도 자기 향상을 고집하는 한은주의 합리적 사랑과 그 삶을 정신적, 물질적으로 격려하고 옹호하는 박창렬의 성숙한 사랑에서 새롭고 발전적인 사랑의 배태가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격랑』은 전후사회의 혼란과 불안 속에 변화된 시대상을 대변하는 남녀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이전에 보여준 바 없는 새로운 애정 갈등 양상을 그렸다. 단 이러한 사랑(물질적 원조)이 정당하려면 사랑의 진정성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물질의 풍요로움에 기반한 중년 남성의 청춘에 대한 성적인 갈망이 아니라 서로의 정신적 요소에 대한 동경과 합일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시기 소설에서 애정을 물질과 연계시키는 사고가 매우 당당하게 발현되는 경우는 장덕조 소설 외에 쉽게 발견되지 않으며 이것은 당대 현실의 반영태이자 다른 의미에서 이상주의적인 사랑의 양상일 것이다.

『격랑』은 새로운 인간상과 연애관을 제시하며 당시로서는 보기 힘든 애정소설을 구현하였지만 반면 물질적 가치를 대변하는 남성 주인공을 죽음으로 처리하고 사회가 제시하는 도덕적 윤리를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소설은 마무리 된다는 점에서 대중연애소설의 공식에 충실하다. 허위와 타락의 구렁텅이를 빠져나오려는 박창렬의 정신과 오버랩 되는 것은 ‘보수성’, ‘자기 기호나 사상에 완고한 신념’으로 이는 ‘전통적인 한국인의 성격’으로 일반화되고, 자신을 죽여 얻게 되는 ‘몰아적 사랑’은 종교적 신념으로서의 가치를 획득하게 된다. 소설의 중반까지 이 소설이 획득한 독특한 사랑의 양상은 대중연애소설의 전형적 결말 구도에 침몰해 들어가면서 대중연애소설의 전통적 가치와 나를 던져 악인까지 회개하게 만드는 휴머니즘으로 귀결된다.

국문핵심어 : 격랑, 장덕조, 1950년대 풍속도, 패턴론, 아프레 걸.

## 1. 들어가며

장덕조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작가이다. 이때의 ‘한’ 시대는 일반적인 작가들보다 훨씬 더 긴 시간성을 요구한다. 한국어여성문학사에서 비견할 수 없는 왕성한 집필 활동은 1930년대에 출발, 세기를 달리하여 2000년대까지 이어졌다. 성왕한 창작욕은 활동 지면을 넘나들었고, 소설에만 국한되지 않는 서사력은 동시대의 다른 여성작가와 달리 야담, 희곡, 방송소설까지 새로운 대중매체들을 섭렵하면서 다채로운 창작활동으로 지속되었다. 전 생애에 가까울 만큼 창작에 종사한 시간이 길었고 일제 강점기, 해방공간, 한국전쟁기, 군정기, 민주화시대 등 한국현대사의 어느 시기에도 그의 글쓰기는 멈추지 않았다. 작품 활동의 시간으로 보나 작품량으로 보나 한국문학사 상의 기록을 세울 만한 숫자인 듯하다.<sup>1)</sup>

하지만 다작의 작품 활동 및 긴 작가 이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이 문단의 관심을 받은 적은 드물다. 식민지 시기 제2기 여성작가로 활동하면서 여류문단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최정희, 이선희, 김말봉만큼 당시에 이슈가 될 만한 자기 세계를 발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단적으로 대중적으로 소외를 받았다.

장덕조의 작가적 신분이 확립된 것은 1950~1960년대의 일이다. 장덕조는 1950년대 수많은 장편연애소설을 발표한 인기 작가로 1950년대 대중소설 인기의 ‘빅3’였던 정비석, 김내성, 박계주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 한국전쟁기 신문에 소설을 연재한 작가로는 김광주가 19편으로 가장 많으며 최인옥 16편, 정비석 15편, 박용구 14편, 장덕조 13편, 곽하신 13편, 박영준 12편, 김말봉 11편 등이 그 뒤를 잇는다.<sup>2)</sup> 장덕조는 1950년대 당시

1) 조리, 『장덕조 소설 연구』, 전북대 박사논문, 2007, 1쪽.

2) 한원영, 『한국신문연재소설의 사적 연구(상)』, 푸른 사상, 2010, 38쪽.

인기의 척도라 할 수 있는 신문소설을 가장 많이 연재한 여성작가로서 독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우리 문단의 제1인자로 손꼽히는 대중소설가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므로 1930년대의 김말봉에 뒤이어 대중소설에서의 여성작가 계보를 잇는 대표적 인물인 셈이다.

이에 본고는 한국전쟁기 이후 장덕조 대중연애소설의 대표성을 띠는 『격랑』을 중심으로 장덕조 소설의 변화 양상과 ‘연애’를 통해 드러나는 작가의 시대의식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격랑』은 1957년 12월 1일부터 1958년 5월 31일까지 경향신문에 총 181회 연재된 소설로 1959년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1950년대 장덕조가 발표한 소설을 크게 대중연애소설과 멜로풍 역사소설로 대별할 수 있는데 작품의 배경이 현대와 과거(역사)를 넘나들어도 ‘연애’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통해 시대성을 포착하고자 했던 작가의식의 일관성을 발견할 수 있다. 『격랑』은 연역적으로 볼 때 식민지 시대부터 이어진 여성의 보편적 일상사를 기저로 1950년대 시대적 특수성을 ‘사랑 이야기’를 통해 구현한 것으로, 이 시기 독자들의 오락적 흥미를 충족하면서도 불변하는 가치에 대해 설파하는 교양적 서사이다.

## 2. 한국전쟁기 장덕조 소설의 변화와 위상

본 연구는 연구자의 앞선 두 편의 논문과 연속선상에 있다. 초기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장덕조의 문학적 출발에 대해 규명한 『부부 역할론과 신가정 윤리의 탄생』<sup>3)</sup>에서는 식민지 시기 장덕조의 젠더의식에 주목하였다. 초기소설은 식민지 시기 여성들의 일상사를 소재로 사랑과 결혼을 통해 부부 중심의 도덕적 가정 건설을 서사화한다. 이들은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삶의 혼란(남편의 외도)을 일탈이나 타락의 기제로 삼지 않고

3) 진선영, 『부부 역할론과 신가정 윤리의 탄생-장덕조 초기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28호, 한국여성문화회, 2012, 485-516쪽.

반성의 계기로 삼으면서 더욱 단단한 가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장덕조의 초기 단편소설은 아내가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부부 중심의 가정소설이라 할 수 있다.

장덕조의 첫 장편소설인 『은하수』는 대중연애소설임에도 주인공 남성과의 연애 관계는 약화되고 오히려 식민지 여성들의 개인적, 사회적 수난사가 전면화 되었다는 측면에서 초기 단편소설과 궤를 같이 한다. 여성들이 다른 시대적 감각(전통과 근대)과 성격, 외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 같이 똑같은 운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계집된 죄’ 때문이며 남성들은 태생적으로 갖게 된 ‘남성된 무기’를 휘둘러 여성을 고통과 시련으로 내몬다.<sup>4)</sup>

앞선 두 편의 연구를 볼 때 식민지 시기 발표한 초기소설의 주요 소재는 식민지 시대 여성들의 사랑, 결혼, 가정 문제이며 연애나 애정 충돌이 주요 갈등으로 등장한다. 이는 시대를 달리하여도 장덕조 소설의 주요 체재이지만 갈등을 예각화하는 방식이나 주요 플롯에서는 변화가 감지된다. 장덕조에게 대중연애소설가로서의 입지가 확보되는 1950-60년대 발표한 소설을 보면 소설의 배경은 현저히 도시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남주인공의 경우 직업 불명의 남편이거나 땅을 잃은 농민이었던 반해 구미에서 돌아온 사람, 의사, 은행가, 실업가 등으로 구체화 되었다. 여주인공의 경우도 대개 가정주부였다가 주부나 전쟁미망인, 여대생으로 변화되었다. 특히 사건의 핵심적 갈등은 이전의 소설일 경우 가정 잡사였으나 삼각연애, 외도, 원조교제, 불륜 등으로 당대 대중의 호기심을 끌 수 있는 자극적인 소재가 전면화 되었다. 『격랑』 또한 장덕조의 1950년대 대중소설의 핵심 체재에 부합하는 내용을 표면에 배치하여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가장 이른 시기에 장덕조의 전 작품을 연구대상으로 그 변모 양상과 작가의식을 연구한 조리에 따르면 장덕조는 1950년대를 전후로 이전의

4) 진선영, 『장덕조 신문 연재 장편 『은하수』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제56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14, 451-471쪽.

작품 세계에 반한 새로운 방향전환을 감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먼저 그 이전의 작품에 대하여서는 초기의 신감각적인 인상과 그 후의 서정적, 신변소설적, 사실적, 풍자적, 향토적 특징들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의 연재소설들은 이러한 용어들로 표현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이전의 작품들은 의식적으로 본격문학에 접근하여 개인적인 담론과 주아적(主我的) 감정을 표현하고자 했다면 그 이후의 연재소설들은 상업성에 양보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뚜렷한 문체적 특징을 드러내지 않고 통속적인 대중소설로서 스토리의 확장과 주제의 불명확성이라는 특징을 드러내다고 파악하였다.<sup>5)</sup> 조리의 논문은 장덕조의 문학 세계를 통시적으로 살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지만 연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식민지기에 치우친 감이 있어 1950년대 이후에 발표한 작품에 대한 관심을 촉발한다.

김동윤은 1950년대 신문연재소설을 개괄하면서 장덕조의 작품(『격랑』, 『원색시대』)이 특히 사회부패상에 대한 대항의식을 드러낸다고 보았다. 정치인, 고급관료 등 지도층의 부패상과 정치 불신이 강렬하게 제기되어 있고 뇌물청탁과 권력동원이 난무하는 무규범성의 세태도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는 장덕조의 대중연애소설이 시대성의 반영이자 이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냄으로써 신문소설의 사회적 기능을 달성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라 할 수 있다.<sup>6)</sup> 김동윤의 논문은 1950년대 신문소설의 전반적 양상과 특징에 집중하다보니 개별 작품을 깊이 있게 고구할 수 없었고 이러한 이유로 『격랑』 또한 소재적 차원에서만 언급된 한계가 있다.

남금희는 『대구매일신문』에 연재된 장덕조의 소설 5편(『비취』, 『만종(晩鐘)이 운다』, 『여자 삼십대』, 『여인상』, 『역류 속에서』)을 연구대상으

5) 조리, 앞의 글, 104-110쪽.

6) 20대의 회사원 ‘최금희’는 “유능한 정치가라고 불리우고 싶으면 싶을수록 책략과 허위를 일삼아야 하는 모양”이라며 선거운동이란 거짓말 경쟁이라고 비판한다. 뿐만 아니라 “정치가라는 건 출세를 위해서는 어떤 부끄러움도 창피도 무릅”쓰다면서 “양심이란 걸 가져서는 정치가가 될 수 없다”라고 흥분한다. 정치와 선거에 대한 강한 불신이 드러난다. 김동윤, 『신문소설의 재조명』, 예림기획, 2001, 154쪽.

로 1950년대 시대상과 애정풍속, 전쟁을 겪은 여성들의 가치관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전후 여성들의 지위와 사회인식의 변화는 봉건적 사고를 벗어나 개인의 행복과 애정의 권리가 우선시되는 삶을 요구하지만 그 형태는 기존의 도덕적 관습을 뛰어넘는 간통, 도피행각, 죽음 등으로 파국을 맺는다고 보았다. 또한 전후 여성들이 인생의 길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현실을 직시하며 변화하는 현실에 적응하려는 여성인물들 또한 그려내었다고 평가하였다.<sup>7)</sup> 이영미는 장덕조의 1950년대 연애소설을 두루 살펴면서 장덕조의 대중연애소설이 동시대에 활동했던 정비석, 김내성, 김말봉 등과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파악함으로써 장덕조 소설의 특수성을 파악하였다. 장덕조의 대중연애소설이 한국전쟁 이후 물질만능의 세대 속에서도 사랑의 진정성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신파성을 극복하였고 이러한 측면에서 김내성의 소설과 맞닿아 있다고 보았다.<sup>8)</sup> 남금희와 이영미의 논문은 장덕조가 1950년대 발표한 대중연애소설을 연속성의 측면에서 살펴면서 시대적 특수성을 포착하였지만 이를 통해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이 무엇인지는 뚜렷이 밝히지 못한 면이 있다.

김윤서는 박사논문에서 장덕조가 1930년대 쓴 소설들이 서정적, 신변 잡기적이라면 1950년에 이르러 확실히 대중소설적 면모를 갖추었다고 평가하였다. 김윤서는 장덕조의 1950년대 장편 연애소설을 대상으로 젠더 정체성과 생성의 윤리, 미학적 측면을 살펴보았는데 특히 『격랑』의 경우 1950년대 여성들의 성과 사랑, 결혼이라는 문화정치가 새롭고 현대적인 양태 속에서 구현되었다고 보았다. 비규범적 사랑의 양식들이 가부장적 연애 담론과 위계화를 배제한 채 성 의식의 탈주를 보여준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여성 젠더의 귀결점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또 하나

7) 남금희, 『1950년대 장덕조 신문소설 연구-『대구매일신문』을 중심으로』, 『현대소설 연구』 제20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3, 305-324쪽.

8) 이영미, 『아프레길과 현모양처, 그 허와 실-장덕조와 박계형』, 『한국대중예술사, 신파성으로 읽다』, 푸른역사, 2016, 318-337쪽.

의 종속이라는 점이 장덕조 소설의 한계이나 반면 가부장제의 거대 담론 속에서 상징적 기표로 머물지 않고 슬픔과 고통을 긍정하는 힘과 본질주의로서의 여성 젠더의식을 찾고자 하는 주체의 태동, 재배치, 새로운 생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았다. 9) 『격랑』을 ‘질투 모티프’로 고찰한 논문에서는 세 여성인물(추련, 금희, 은주)의 질투의 양상을 구별하고 이것이 성, 사랑, 결혼과 이데올로기의 불완전성 및 욕망의 영역을 형성해가는 것을 살펴보았다.10) 김윤서는 박사 논문에서 소략하게 분석된 『격랑』을 개별 논문으로 확장, ‘질투’의 방법론으로 해석하였는데 여성 인물의 변별에 따른 세 가지 질투의 양상만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마무리된 감이 있어 아쉽다.

1950년대 신문연재 소설에서는 여러 가지 여성 문제가 부각되어 나타나는 것이 주된 특징의 하나이다. 이 시기 소설은 부정적 의미에서 여성 문제를 사회의 이슈로 부각시키는 면도 있었지만 여성 의식의 자각과 확산에 기여한 부분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전쟁미망인의 시련과 방황이라든지 유한마담과 여대생들의 탈선 등을 중심으로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가운데 성차별의 실상을 고발하고 여성의식을 고취하는 기능을 나름대로 수행했다할 수 있다. 여전히 가부장제가 지배이데올로기로서 굳건히 자리 잡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높은 현실의 장벽 속에서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 의식의 쟁점화가 소설에 많이 드러나는 것은 여성작가의 활동이 활발해진 점과도 맥을 같이한다.

한국전쟁기 그 어떤 작가보다 활발히 작품 활동을 수행한 장덕조는 대중연애소설의 규범적인 관습(convention)을 유지하면서, 기존 가치관을 포용함과 동시에 남녀 주인공의 욕망과 인식의 변화 등 대중의 가치관과

9) 김윤서, 『장덕조 소설의 젠더의식 연구-1950년대 연애소설을 중심으로』, 영남대 박사논문, 2017.

10) 김윤서, 『장덕조 소설에 내재한 ‘질투’ 모티프 고찰- 『격랑』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제78집, 한민족어문학회, 2017, 313-343쪽.



교감하며 새로운 젠더상을 구축하는 글쓰기를 하였다. 이것이 1930년대 김말봉을 잇는 1950년대 새로운 ‘유니크’인 것이다. 장덕조의 소설이 대중소설로 빠르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독자의 심미적 욕구와 소설의 간접적 지도 기능, 교양의 수단을 골고루 갖추어 맛있게 차림할 수 있는 장덕조의 필력 때문이었다.

이 시기 “장덕조 여사는 이미 ‘광풍’, ‘낙화암’, ‘다정도 병이런가’ ‘누가 죄인이나’ 등의 장편소설로 정평이 있는 분”으로, 본고에서는 1950년대 장덕조 신문연재 대중연애소설의 대표성을 갖는 『격랑』을 통해 동시대 다른 작가와 변별되는 장덕조의 독특성을 연애소설의 구현방식을 통해 살피고자 한다. “격랑처럼 흔들리는 시대의 풍속도” 속에서 “오락과 추악에 물들지 않은” 숨은 진주(한은주)의 사랑과 사상과 생활 방식을 통해 “한 줄기 시대상을 응시”하려는 작가의 의도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sup>11)</sup>

### 3. 영리(伶俐)한 사랑과 격랑의 교훈, 합리적 여성상의 건설

연애소설을 읽는 가장 전통적인 방식은 서사에 표면화되어 있는 삼각관계의 플롯을 따라가는 것이다. 애정의 삼각관계는 연애소설의 관습화된 공식으로 도덕과 욕망의 선택적 갈등에 처한 주인공의 상황을 구현하기에 효과적이다. 또한 하나의 삼각형은 각 꼭지점에 위치한 인물을 중심으로 새로운 삼각관계를 형성하기에 사건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되어 마치 상당히 복잡한 사건의 충돌로 포장되기도 한다. 이러한 삼각관계의 서사를 쫓아가는 독자는 반복과 중첩의 사건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주인공의 선택과 오해에 심리적 긴장감을 갖고 서사적 흥미를 갖게 느끼게 되는 것이다.

『격랑』에는 모두 네 개의 삼각관계가 등장한다. 박창렬-한은주-유준

11) 『다음 석간 장편소설 격랑 연재예고』, 『경향신문』, 1957.11.20.

식, 한은주-박창렬-추련여사의 삼각관계는 주요플롯을 형성하면서 서사의 내적 긴장을 유발하고 한은주-유준식-한은영, 한은영-유준식-최금희의 삼각관계는 부차플롯을 형성하면서 서사의 행간을 풍성하게 만든다. 이 소설에서 가장 핵심적인 삼각관계는 여주인공 한은주를 중심으로 놓고 박창렬-한은주-유준식, 박창렬-한은주-추련 여사의 삼각관계이다.

여주인공 한은주는 여대생으로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야간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성정이 청정하고 고고하며 아름다운 여성이다. 이런 은주의 가정은, 아버지는 손꼽던 영문학자였으나 사변 때 납치당해 생사조차 알 수 없고 어머니는 수복 후 처음에는 옷가지며 패물 같은 것을 돈으로 바꾸어 살고 그 다음에는 빚을 얻어 지냈으리만큼 생활에 대해 몰상식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려간 남편이 돌아왔을 때 얼굴 볼 낮이 없다며 딸들은 대학(은주)과 고등학교(은영)에 보내고 있다. 다달이 학비와 생활비에 이자를 무는 빚만 백만 환이지만 딸들의 취직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러한 가정에서 은주는 경제적 곤궁에 시달리면서도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잃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한은주와 함께 야간교실을 운영하는 유준식은 은주와 마찬가지로 대학에 다니고 있으며 가난하지만 “정직하고 순정적이고 얼굴이 잘 생겼다.”<sup>12)</sup> 한은주는 자신의 삶을 돌보지 않고 오직 야간교실 아이들의 교육에 매진하는 유준식을 정신적으로 존경한다. 두 선남선녀 주인공은 순수함, 도덕성, 정직함의 정신적 요소(선(善)의 가치)와 반면 물질적 곁어리는 결핍의 요소를 갖춘, 이러한 의미에서 전통적인 연애소설의 주인공 ‘감’으로 손색이 없다.

서사의 초반부는 가난하지만 건강한, 궁핍하지만 풍족한 아름다운 남녀의 사랑의 서사에 초점이 맞추어진 듯하여 독자들의 멜로드라마적 감상성을 충족시키는 듯 보인다. 이러한 방식은 고전적이며 전형적인 연애서사의 공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환상은 얼마 지나지 않고 깨어진다. 한

12) 장덕조, 『겨랑』, 신태양사, 1959, 40쪽.

은주와 유준식은 친밀함을 기반으로 한 감정적 유대를 갖지만 이것이 열정적 사랑으로 가속화되진 않는다. 한은주와 유준식의 사이는 “사랑하는 사이라기보다는 친우라는 편이 옳았다.”<sup>13)</sup> 한은주는 유준식의 반항적인 성격과 끈은 정직함, 습관화된 고독을 동경하기는 했지만 그를 현실적 의미의 애인으로 여기기엔 경제적 장벽이 서로에게 놓여 있었다.

젊은 남녀가 저녁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을 위해 노력하고 있노라면 서로 호의가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은주는 준식을 상대로 사랑에 빠지기에는 지나치게 총명하였고 준식 역시 생활의 부담이 너무도 컸다. 가난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다 같이 알고 있는 것이다. (중략) 은주는 결혼의 상대로서 준식을 생각할 때 전도는 요원한 듯 했다. 어느 편에서든지 경마 말처럼 맹진할 정열이 없는 한 돈 없는 현대 지식 계급에 있어 연애란 결혼이란 한 개의 숙명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은주였다. (『격랑』, 43쪽)

식민지 시대 최고의 대중연애소설 『찔레꽃』에서 보여준 사랑과 확연히 다르다. 이들보다 더 가난하고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민수와 정순의 ‘가난’은 장애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의 사랑을 더욱더 공고히 해주는 물적 장치였으며 그렇기에 그 사랑을 지켜나가는 정순의 숭고성은 종교적 경지(정순=성모 마리아)로 비약되기도 하였다.<sup>14)</sup> 반면 이 작품에서 이상주의적 사랑은 자리할 곳이 없다. 사랑에는 ‘총명함’이 선행하기 때문이다. ‘명민(明敏)’함이란 용어가 더 적합할 것 같은데 자신의 위치(여대생-가장)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똑똑함과 맹진할 정열을 애당초 차단하는 민첩함이 ‘돈 없는 현대 지식 계급’의 숙명이라는 것이다.

은주가 준식과의 애정문제를 의식적으로 급진전하지 않은 것은 그 사랑으로 인해 자기를 건설하기보다 후퇴시키는 점이 없지 않을까 주저했

13) 앞의 책, 43쪽.

14) 진선영, 『한국 대중연애서사의 이데올로기와 미학』, 소명출판, 2013, 83-88쪽.

기 때문이었다. 이때의 자기 건설은 정신적, 이상주의적 요소가 아니다. 순수하거나 청결한 사람들은 이 같은 사고방식을 경박하고 안이한 태도로 조소할 수 있으나 은주가 생각하는 자기 건설은 가난에 괴로워하고 이를 부끄러워 해 본 사람만이 이룩할 수 있는 자기 향상이다. 낭만적 사랑에 함몰되지 않는 현실주의적이며 합리적인 삶의 태도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은주와 유준식의 관계는 선남선녀의 연애서사를 형성하지 못하고, 유준식이 야간교실의 운영자금을 만들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서사의 상당 부분 부재하게 된다. 유준식의 부재로 인하여 상경 이후에도 유준식의 공백을 타고 들어온 박창렬과 본격적인 삼각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 이는 박창렬이 서사의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은주의 애인으로 유준식의 이름을 알게 되고 이를 크게 개의치 않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고향에서 상경한 후 유준식은 박창렬에게 물질적 원조를 받아 야간교실이 운영된 것을 확인하고 은주에게 크게 화를 내지만 은주의 상황에 개입할 자격이 없음을 알고 더 이상 야간교실에 나가지 않는다. 이후 유준식은 은주의 친구인 최금희, 은주의 여동생인 한은영 두 명의 아프레와 삼각관계를 형성하면서 새로운 의미망을 형성한다.

대중연애소설에서 여주인공들의 삶의 방식은 개인적 욕망이나 사랑의 감정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필연적인 정서의 형태로 인정된다. 그들의 삶의 방식은 기존의 질서(구도덕)와 체도에 대한 거부와 새로운 질서에 대한 신념으로 욕망의 양각화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서사의 전반적인 흐름에는 전통적인 선의 가치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수성의 의지를 보이는 은주지만 기존 질서에 대한 동요와 불안의식 또한 표출된다.

한은주는 동생 은영으로부터 ‘그이(박창렬)가 언니의 패트론’이라는 비아냥을 듣고도 “참 좋은 어른이야”로 무마해 버린다. 은주는 박창렬의 굳센 힘과 정열에 큰 혼란을 느끼면서도 자신에게 굳센 기둥이 되어주었으면 하는 이중적 감정을 느낀다. 한은주는 박창렬을 애정의 상대라기보다 영혼이 안정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 생각했다. 애욕과 관능의 시선이 아니라 안심하고 평온한 사랑을 기대했음에, 창렬의 배신, 실연으로 강한

자기 존중의식을 회복하게 된다. 박창렬의 계속된 사과와 순애보적 행동에 내심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새롭게 다져진 자신의 내적 생활이 이를 허락지 않았다.

고통을 통해 인생의 참된 값어치를 알고자 했던 은주는 격랑(사랑의 수난)의 바다에서 괴로움을 겪다가 비로소 인생 향로를 찾게 된 것이다. 이처럼 한은주는 전통적인 성 윤리를 견지하며 주어진 현실의 틀을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통해 진정성 있는 연애의 의미를 되새긴다. 즉 사랑의 수난을 거쳐 새롭게 수립되는 윤리적 인간형의 여성인 한은주의 삶은 추련, 금희와 비교되어 긍정적인 가치를 획득하게 된다.

은주는 언제나 평온한 바다의 경멸할 뱃놀이꾼이 되기보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부딪쳐 그 처절한 인생의 참된 의의를 걸어보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 고생을 통하여 인생의 값을 알고 싶었다. (중략) 격랑의 바다에서 몇 번이나 난선의 괴로움을 경험한 뒤 비로소 자기의 용감했던 인생 향로에 대하여 말하리라 생각한다. 어찌 혼자 편안할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각각 그 괴로운 인생 향로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홀로 파도 없는 바다의 유쾌하고 평온한 뱃놀이를 원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격랑』, 208쪽)

#### 4. 물질적 가치의 옹호와 보수주의로의 회귀

이 소설의 실질적인 남녀주인공 및 삼각관계는 한은주와 ‘외국산 미학자’ 박창렬이며, 이들의 연애서사를 추련 여사가 방해하는 형국이다. 한은주가 박창렬을 처음 만난 것은 추련 여사의 새로 지은 아틀리에 낙성 파티에서이다. 추련은 국전에서 조각으로 대통령상을 받은 여류 예술가이며 신선하고 발랄한 매력을 발산하는 여성이다. 평소 여류 조각가로서 추련을 사모해왔던 은주는 파티에서 타락에 찌든 현장을 목도하고 이를 야간학교 아이들의 세계와 비교하다 우울한 마음으로 파티를 빠져 나오는

데 은주를 뒤쫓아온 것이 박창렬이다.

애정소설의 공식성에 따르면 애정의 삼각관계에서 삼각을 형성하는 주인공들은 시대적 가치를 대변하는데 이 가치가 선과 악으로 정확하게 양분된다. 악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물은 거개가 자본을 바탕으로 가부장제의 이득을 누리는 전형적인 남근적 영웅과 일치한다. 남근적 영웅은 여성 인물을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억압하는 면에서 비도덕적 인물의 전형이다.<sup>15)</sup> 앞선 관습에 따르면 박창렬은 한은주와 유준식의 건강한 연애관계를 방해하고 한은주의 물질적 결핍을 파고들어 여주인공을 선택적 갈등에 처하게 하는 남근적 인물일 것이다.

하지만 박창렬은 실상 마음이 깨끗하고 추한 것을 싫어하는 중년의 미학자로서 1950년대 장덕조 연애소설의 새로운 남성 주인공형이다. 박창렬은 프랑스에서 미학을 전공하였고 현재는 대학 교수로서 남 보기 부끄럽지 않은 세대적 지위와 결혼의 경험이 없는 미혼자로서, 정신적 물질적으로 모든 자격을 충분히 구비한 중년신사이다. 타고난 반항적인 성격과 긴 외지 생활에서 습관된 고독으로 화려한 인생에 대한 동경은 접어둔 채 어느새 중년이 되었는데 한은주의 외곬적인 정직함에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망막하던 생활이 선명한 색채를 띠기 시작하였다.

박창렬이 한은주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추련 또한 질투로 유발된 사랑의 감정을 확인한다. 사실 박창렬과 추련의 관계는 한은주와의 관계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하다. 죽은 오빠의 친구로 어렸을 때 만나 청년시절 추련에게 열정적으로 구애하였으나 추련은 창렬의 친구와 결혼을 하였다. 창렬은 실연의 아픔으로 고국을 떠나 프랑스 유학길에 올랐고 다시 고국에 돌아왔을 때 추련은 미망인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창렬은 이미 추련에게 과거의 열정이 사라졌으며 우연히 파티에서 만난 깨끗하고 고귀한 은주에게 매혹되지만 서로를 엿나가는 운명의 장난처럼 추련은 창렬에게 집착하게 된다. 게다가 여성에게 전혀 관심이 없던 창렬이 추련에

15) 이정옥, 『1930년대 한국 대중소설의 이해』, 국학자료원, 2000, 155-156쪽.

게 메신저가 되어 달라고 하자 ‘매사에 질투가 났다.’ 모든 것을 구비한 신사의 사랑을 얻는 것은 “자기 개인의 자존심뿐만 아니라 미망인의 이름으로써도 승리”<sup>16)</sup>하는 것이라 생각하였기에 추련은 본격적으로 창렬을 유혹하기로 결심한다.

추련은 박창렬에게 약을 탄 물을 마시게 한다. 쓰러진 박창렬을 침대에 누이고 금희로 하여금 은주를 불러내어 침대에 함께 누워있는 모습을 보게 한다. 이날은 박창렬이 은주의 집으로 약혼을 허락받기 위해 오기로 한 날이었다. 가장 행복한 날 모든 파탄을 경험한 은주는 장고의 시간을 고민한 후 박창렬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P읍의 조그만 여학교로 떠나게 된다.

박창렬은 은주가 떠난 이유를 알지 못한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박창렬은 은주의 고귀함과 사랑을 믿고 순애보적 사랑을 지켜 나간다. 박창렬의 굳센 의지와 사랑의 강도는 은주와 연애중일 때보다 실연한 이후 더욱 빛을 발한다. 도량이 넓은 것, 한결같은 성격, 남을 의심할 줄 모르는 심정은 한은주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격 있는 사람’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추련은 창렬이 은주와 헤어진 후 자신에게로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박창렬의 순애보적 사랑이 은주가 사라진 뒤 그 집안까지 돌보는 사태가 되자 다시 계략을 짠다. 금희와 추련은 제2차 합작으로 박창렬을 정릉의 호텔로 이끌고 가 저번처럼 약을 탄 냉수를 마시게 한다. 호텔방에 숨어있던 추련은 의식을 잃은 박창렬에게 ‘책임을 지우자’는 속셈으로 가장 강력하고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박창렬을 공략한다. 결국 추련과 하루밤을 같이 지낸 박창렬은 아침이 되어 ‘결혼을 약속하였다’는 추련의 말을 듣고 도망치듯 호텔을 빠져나온다. 몽롱한 정신과 세상의 모든 허위와 속임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인 은주에게로 가고자 맹렬히 차를 몰았으나 결국 박창렬의 차는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만다. 두 공

16) 장덕조, 앞의 책, 344쪽.

범자 추련과 금희는 박창렬의 사고 소식을 접하고 병원을 찾아가면서 박창렬의 의지에 새삼 놀라움과 자신들의 이기와 참회한다.

그 힘은 몸에 배인 습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사상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보수적인 그리고 자기 기호나 사상에 완고한 신념을 가진 전통적인 한국인의 성격이기도 했다. 그 같은 신념과 성격 속에서 박창렬의 연애도 의외로 보수적인 틀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는 무쾌도라는 것을 가장 싫어했다.

그가 처녀성을 높이 평가한 것도 그 같은 사상 때문인지 몰랐다. 요컨대 그는 정통적인 사회질서 안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이었다. 박창렬은 그 연대 남성들이 호흡해온 한국의 전통적인 사회도덕 속에서 자라나 파리의 생활이 몸에 배인 남자다.

추련은 신이 자기를 벌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주아적(主我的)인 애욕을 못 이겨 덮어놓고 빼앗으려고만 했던 잘못을 신은 이렇게 벌하신 것이다. 추련은 박창렬을 통하여 비로소 남녀간의 애정이란 얼마나 몰아적(沒我的)이라는 것을 배웠다. 인간은 가장 크고 높은 애정을 지녔을 때 어떤 방해에도 꺾이지 않는다. 상대방을 믿는 마음이 그만큼 큰 것이었다. 진실로 사랑하는 동안 인간은 신에게 통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박창렬의 은주에 대한 사랑이 그러했다. (『격랑』, 476쪽)

『격랑』은 전후사회의 혼란과 불안 속에 변화된 시대상을 대변하는 남녀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대중연애소설이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멜로드라마로서의 가치를 구현하였다. 끊임없이 유행하는 세계가 주는 이상 속에서 이전에 보여준 바 없는 새로운 애정 갈등 양상을 그렸다.

즉 신성해야 할 연애와 결혼에서 돈(물질)이 우선시 되는 세대에 대해 매춘에 가까운 부정적 요소라는 판단이 전제된다. 하지만 이것은 시대의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것, 또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전제된다면 남성의 물질적 후원은 충분히 정당하고 심지어 애정의 크기가 커질수록 물



질적 후원도 커진다는 생각을 내비친다. 사랑의 물질성은 정신성만큼이나 사랑을 윤택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요소라는 점을 피력한다. 이렇게 물질과 애정을 교환관계로 설정하는 것이 정당할 수 있다고 보는 점에서 장덕조는 정비석과 동질적이다.<sup>17)</sup>

단 장덕조는 이러한 물질적 원조가 정당하려면 사랑의 진정성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가난의 고통을 견디면서도 자기 향상을 고집하는 한은주의 합리적 사랑과 그 삶을 정신적, 물질적으로 격려하고 옹호하는 박창렬의 성숙한 사랑에서 새롭고 발전적인 사랑의 배태가 가능한 것이다. 단지 물질의 풍요로움에 기반한 중년 남성의 청춘에 대한 성적인 갈망이 아니라 서로의 정신적 요소에 대한 동경과 합일 그리고 육체적 욕망은 이를 강화시킨다. 이 시기 소설에서 애정을 물질과 연계시키는 사고가 매우 당당하게 발휘되는 경우는 장덕조 소설 외에 쉽게 발견되지 않으며 이것은 당대 현실의 반영태이자 다른 의미에서 이상주의적인 사랑의 양상일 것이다.

이처럼 『격랑』은 새로운 인간상과 연애관을 제시하며 당시로서는 보기 힘든 애정소설을 구현하였지만 중국에는 물질적 가치를 대변하는 남성 주인공을 죽음으로 처리하고 사회가 제시하는 도덕적 윤리를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소설은 마무리 된다는 점에서 대중연애소설의 공식에 충실하다. 박창렬은 자유로운 파리에서 유학생활을 하였고 때문에 정신적 특히 육체적으로 개방적 분방함을 지녔으리라 추측하지만 실상 추련과 금희로 상징되는 허위와 타락의 구렁텅이를 빠져나오려는 박창렬의 정신과 오버랩 되는 것은 ‘보수성’, ‘자기 기호나 사상에 완고한 신념’이다. 박창렬은 무규범적이고 반도덕적인 것을 싫어했으며 이러한 이유로 한은주의 처녀성(정직함과 자기 향상을 위한 노력)을 존중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의 전통적인 사회도덕 속에서 성장한 ‘전통적인 한국인의 성격’으로 일반화된다.

17) 이영미, 앞의 책, 336-337쪽.

박창렬이 사랑하는 여성을 지키려 자신을 죽여 얻게 되는 ‘몰아적 사랑’은 종교적 신념으로서의 가치를 획득하게 된다. 소설의 중반까지 이 소설이 획득한 독특한 사랑의 양상은 대중연애소설의 전형적 결말 구도에 침몰해 들어가면서 대중연애소설의 전통적 가치와 나를 던져 악인까지 회개하게 만드는 휴머니즘으로 귀결된다. 2차에 걸친 속임수로 사랑을 빼앗고 죽음에 이르게 한 추련과 금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며 숨을 거두는 창렬의 모습은 가치 있는 삶의 방향을 제인하는 소설의 지향점이며 도덕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창렬이 운명하게 되자 이기적이고 타락한 욕망에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추련과 금희의 모습을 통해 작가가 추구하는 윤리관을 고찰하게 된다.

## 5. 페트론과 아프레의 시대성, 전환기 사회의 재현

장덕조가 한국전쟁 이후 발표한 대중연애소설의 대부분이 초중반에는 자유연애를 통한 낭만적 사랑, 미국식 문물과 사상의 유입을 통해 전근대성과 근대성의 혼성을 재현한다고 볼 때 이러한 사회문화적 코드는 한국 사회의 변화와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가장 앞서 보여주는 것이 주인공의 변화이다. 한은주의 동생 은영의 말을 빌리면 주인공의 변화가 일목요연하게 설명된다.

“미스터 유하고 은주 언니 나이도 비슷하지, 아직 생활 능력도 없지. 언니는 집이 가난하고 장녀니까 지금 기막히게 돈이 필요한 거예요. 미스터 유는 우리 집의 빚을 갚아주고 우리 식구들을 먹여 살릴 능력이 없지 않아요?”

“야간교실을 살리기 위해서 박창렬 씨한테 접근을 했다고 하지만 그건 핑계예요. 언니가 벌써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무능한 미스터 유에게 대한 반역이었어요. 언니는 언제나 초조해하고 있었거든요. 박창렬 씨가 들어다 준 난로는 그게 난로가 아니라 미스터 유로부터 뛰쳐나가는 조약대 같은 거야.”

(『격랑』, 372쪽)

영악한 은영이 언니 은주의 연애를 꿰뚫어 보고 있다. 언니가 정직하고 미더운 유준식을 선택할 수 없는 이유, 그것은 바로 생활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가난한 집안의 장녀인 은주는 초조하게도 돈이 필요했고 그 궁색함을 박창렬의 난로가 비집고 자리잡은 것이다. 난로로 시작된 가난한 야간교실 후원은 점점 한은주 가족에 대한 후원으로 확대된다.

전쟁, 미국문화의 유입 등으로 폭증한 물욕, 성욕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해서는 물질적 풍요로움이 절대적이었지만 불행하게도 그것을 갖춘 이는 소수의 중년 남성이었던 것이다. 그러니 지금 명동에 나와 돌아다니는 스물 전후의 젊은 여성들에게 중년 남성은 충분히 매력적인 대상이었던 셈이다. 이들은 여자가 패트런 남성을 통해 자금을 끌어내어 사회 활동에 이용하고 집안을 먹여 살리는 것을 ‘수완이 좋은’ 것이라고 평가한다.

‘패트런(patron)’ 사전적 정의는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 예술가나 사회사업·학술 단체 따위를 재정적으로 원조하는 사람’인데, 이는 ‘후원자’, ‘보호자’, ‘장려자’, ‘은인’ 등의 개념으로서 ‘스폰서(sponser)’와 유사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 직업 활동을 하기가 요원했던 당시로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던 사람들에게 물질적 토대를 제공하는 무리의 존재는 중요하다. 아무런 후원 없이 홀로 서야 하는 여성들에게 경제적 위축이 자칫 삶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재력 있는 후원자의 물질적 후원은 재능 있는 여성들에게 큰 힘이 되었음에 분명하다. 이처럼 장덕조 소설에서는 여자들이 사회적 활동을 함에 있어 남성의 경제적 후원을 당연시하고 있다. 여성들은 이미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는 인물들인데 모두 애정관계로 엮힌 남성의 후원에 의해 그 사회적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한은주가 ‘패트론’이라는 말에 충격을 받은 것은, 당시 이 말이 단순한 ‘후원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애정을 전제로 한 물질적 후원의 의미로 널리 쓰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물욕이나 정복욕에 휘둘려 행해지는 사랑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사랑보다 경제력에 치중하는 결혼은 일종의 매춘적 상황이라고 이야기한다. 타락한 정치 상황에 대한 비판과 추련의 속임수 동침 상황을 오버랩해 놓은 마지막 부분은 그런 의도를 확실히 보여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의 비롯하여 장덕조 소설 전체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패턴 현상이 당시 매우 흔했다는 점, 도덕성 여부를 떠나 젊은 여자들이 패턴을 원하는 세태를 충분히 이해할만한 현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병익은 한국전쟁 이후 폐허의 비현실적 공간에 새로운 군상이 출현하였다고 하였다. “전통적 윤리가 파괴되는 아프레게르의 퇴폐성과 부조리한 상황 속에 참담한 비극성을 느끼는 실존주의”가 그것이다. 자칫 서로 전혀 다른 이질성을 갖는 듯 보이지만 이 두 군상은 절망이란 하나의 비극에서 탄생한 쌍둥이이며 이것은 소설에서 찰나적인 들뜬 사람과 가없이 침울한 사람으로 극화되었다고 하였다.<sup>18)</sup>

1950년대 대중연애소설은 사랑의 정열에 휩싸인 명동형, 아프레 걸 (apres-girl), 전후파 여성인물을 통해 애욕적 욕망을 발산하는 열정적 사랑을 전면화한다.<sup>19)</sup> 이들은 ‘자신의 재량에 따라 성을 기획하는 새세대의 여성들’로 개인의 욕망 실현과 성적 자유를 서구적 교양이나 근대적 감각으로 습득한 인물들이다. 이들은 전통적 윤리와 도덕으로부터 자유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주장할 정도로 똑똑한 여성들이다.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사회적 욕구와 열정의 자유분방함에 휩싸인 정서적 욕구의 충족을 삶의 모토로 삼는다. 이들은 남성편력을 통해 에로스적 사랑을 구현하며 가정에서, 육체에서 자유와 해방을 구가한다.<sup>20)</sup>

이 소설의 첫 장면은 은주의 고등학교 동창인 금희가 은주에게 저녁에

18) 김병익, 『한국문단사』, 일지사, 1973, 208쪽.

19) 1950년대 신문소설의 주요 작중인물의 사회적 위상을 살핀 김동윤에 의하면 성별 비중에서 여성주인공이 우위를 점한다. 이들은 여대생이거나 유한부인, 마담, 미망인 들이다. 김동윤, 앞의 책, 71쪽.

20) 김현주, 『‘아프레 걸’의 주체화 방식과 멜로드라마적 상상력의 구조』, 『한국문예비평연구』 제21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6, 316쪽.

파티에 함께 가자며 권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금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타이프와 영어를 배우더니 지금은 반도호텔의 외국인상사에 취직했다. 아버지가 무역상을 운영하는 만큼 집안도 넉넉하고 아무에게도 제약을 받지 않는 강한 자유의사를 지닌 현대여성이다. 추련 여사의 말을 빌리면 금희는 ‘지나친 아프레’이다.

아프레의 말과 행동은 ‘모순당착’의 연속이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다가도 곧 엄연한 진리를 토론하고 현대적임을 자랑하지만 공상과 현실을 구별조차 못한다. 최금희는 처음에는 은행 영업부장인 김옥에게 접근하여 물질적 풍유를 느꼈지만 무뚝뚝하게 자신을 대하는 유준식에게서 발랄한 쾌기를 발견하고 이에 끌리게 된다. 최금희-유준식-한은영은 삼각관계를 형성하며 애정 갈등 양상을 보이는데 은영은 금희보다 더 문제적 인물로 보인다. 은영은 준식에게 정신적으로 더 끌리면서 결혼을 결심한다. 하지만 이 또한 최금희에 대한 질투의 감정에 유발된 즉흥적 판단이며 뻘히 언니 은주를 좋아하여 자신을 만나는 줄 알면서도 물질을 배경으로 한 중년신사로서의 신뢰감에 견딜 수 없는 호감을 느끼는 것이다.

당시 많은 여성잡지들은 아프레 걸 담론을 통해 사회적 무질서 혹은 위기론을 생산해 내는 한편으로 신정조론, 신연애론을 통해 성욕을 관리하며 순결한 여성상을 생산해냈다. 아프레 걸은 현대 여성의 육체에 허영, 사치, 창부성, 양풍모방, 이기주의 등 온갖 부정적인 기표들이 덧붙여지는 과정에서 탄생한 담론적 구성물이다.<sup>21)</sup> 이 작품에서도 금희와 은영을 통해 아프레의 부정성을 서사화하지만 이에 대한 균형적인 잡힌 시각을 요구하기도 한다.

장덕조는 앞서 패턴론에 대해서 애정을 바탕으로 한 물질 후원을, 사랑의 진정성을 기저로 한 물질적 원조를 부정적으로만 판단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해 방식은 ‘아프레’에 대한 판단에서도 엿보이는데 전후의 혼란한

21) 김은하, 『전후 국가 근대화와 “아프레 걸(전후여성)” 표상의 의미』, 『여성문학연구』 제16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6, 177-209쪽.

상황에서 무계획도의 표본처럼 비난받은 아프리카의 생활이 실상은 살기 위한 방향, 교육의 부재에서 오는 무지, 절박한 자기 표현이라는 점이다. 이들이 맹목적으로 새로운 것에 돌진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연애의 순수성이나 결혼의 윤리에 대한 회의 때문이며 과거의 도덕관으로 는 변화된 시대에 인간처럼 살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장덕조는 아프리카의 의문과 방향을 전근대적 사회에서 근대적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식적 혼란이라는 측면에서 온화하게 바라보고 있지만 전후과의 발생지인 파리에서 유학한 박창렬의 입을 빌려 날카로운 조언도 첨언한다. 파리에서 젊은이들의 연애는 보수적인 틀 가운데서 진행된다는 것, 성적인 해방은 사랑의 확신을 가진 후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 같은 파리 젊은이들의 자유분방함은 그 행동들을 이해하고 축복해주는 관대한 시민사회의 성장 속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 6. 나오며

본고는 한국전쟁기 이후 장덕조 대중연애소설의 대표성을 띠는 『격량』을 중심으로 장덕조 소설의 변화 양상과 ‘연애’를 통해 드러나는 작가의 시대의식을 고찰해 보았다. 이 시기 발표한 대중연애소설의 대부분이 자유연애, 미국식 문물과 사상의 유입을 통해 전근대성과 근대성의 혼성을 재현한다고 볼 때 이러한 사회문화적 코드는 한국사회의 변화와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가장 앞서 보여주는 것이 주인공의 변화이다. 한은주는 순수함과 도덕적인 측면에서 전통적인 연애소설의 여주인공으로 손색이 없지만 사랑에 있어 현실적 ‘총명함’을 우선한다. 자신의 위치(여대생-가장)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똑똑함과 자기 건설의 자양이 될 수 있는 사랑을 선택하기 위해 열정을 다스린다. 이는 낭만적 사랑에 함몰되지 않는 현실주의적이며 합리적인 삶의 태도이다. 박창렬은 전통적인 연애소설의 관습에 따르면 남근적 인

물의 전형에 위치하지만 실상 마음이 깨끗하고 추한 것을 싫어하는 중년의 미학자로서 1950년대 장덕조 연애소설의 새로운 남성주인공형이다. 가난의 고통을 견디면서도 자기 향상을 고집하는 한은주의 합리적 사랑과 그 삶을 정신적, 물질적으로 격려하고 옹호하는 박창렬의 성숙한 사랑에서 새롭고 발전적인 사랑의 배태가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격랑』은 전후사회의 혼란과 불안 속에 변화된 시대상을 대변하는 남녀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이전에 보여준 바 없는 새로운 애정 갈등 양상을 그렸다. 단 이러한 사랑(물질적 원조)이 정당하려면 사랑의 진정성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물질의 풍요로움에 기반한 중년 남성의 청춘에 대한 성적인 갈망이 아니라 서로의 정신적 요소에 대한 동경과 합일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시기 소설에서 애정을 물질과 연계시키는 사고가 매우 당당하게 발현되는 경우는 장덕조 소설 외에 쉽게 발견되지 않으며 이것은 당대 현실의 반영태이자 다른 의미에서 이상주의적인 사랑의 양상일 것이다.

『격랑』은 새로운 인간상과 연애관을 제시하며 당시로서는 보기 힘든 애정소설을 구현하였지만 반면 물질적 가치를 대변하는 남성 주인공을 죽음으로 처리하고 사회가 제시하는 도덕적 윤리를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소설은 마무리 된다는 점에서 대중연애소설의 공식에 충실하다. 허위와 타락의 구렁텅이를 빠져나오려는 박창렬의 정신과 오버랩 되는 것은 ‘보수성’, ‘자기 기호나 사상에 완고한 신념’으로 이는 ‘전통적인 한국인의 성격’으로 일반화되고, 자신을 죽여 얻게 되는 ‘몰아적 사랑’은 종교적 신념으로서의 가치를 획득하게 된다. 소설의 중반까지 이 소설이 획득한 독특한 사랑의 양상은 대중연애소설의 전형적 결말 구도에 침몰해 들어가면서 대중연애소설의 전통적 가치와 나를 던져 악인까지 회개하게 만드는 휴머니즘으로 귀결된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장덕조, 『격랑』, 신태양사, 1959.

『다음 석간 장편소설 격랑 연재예고』, 『경향신문』, 1957.11.20.

### 2. 단행본

김동윤, 『신문소설의 재조명』, 예림기획, 2001.

김병익, 『한국문단사』, 일지사, 1973.

이영미, 『한국대중예술사, 신과성으로 읽다』, 푸른역사, 2016.

이정옥, 『1930년대 한국 대중소설의 이해』, 국학자료원, 2000.

진선영, 『한국 대중연애서사의 이데올로기와 미학』, 소명출판, 2013.

한원영, 『한국신문연재소설의 사적 연구(상)』, 푸른 사상, 2010.

### 3. 논문

김윤서, 「장덕조 소설에 내재한 ‘질투’ 모티프 고찰-『격랑』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제78집, 한민족어문학회, 2017, 313-343쪽.

\_\_\_\_\_, 「장덕조 소설의 젠더의식 연구-1950년대 연애소설을 중심으로」, 영남대 박사논문, 2017.

김은하, 「전후 국가 근대화와 “아프레 걸(전후여성)” 표상의 의미」, 『여성문학연구』 제16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6, 177-209쪽.

김현주, 「‘아프레 걸’의 주체화 방식과 멜로드라마적 상상력의 구조」, 『한국문예비평연구』, 제21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6, 315-336쪽.

남금희, 「1950년대 장덕조 신문소설 연구-『대구매일신문』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20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3, 305-324쪽.

조 리, 「장덕조 소설 연구」, 전북대 박사논문, 2007.

진선영, 「부부 역할론과 신가정 윤리의 탄생」, 『여성문학연구』 제28호, 한국여성문학회, 2012, 485-516쪽.



\_\_\_\_\_, 『장덕조 신문 연재 장편 『은하수』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제56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14, 451-471쪽.

## Abstract

Changes and conventions of Jang Duk-jo's popular love story since the 1950s - Focused on 『Raging Waves』

Jin, Sun-young

This paper examined the changing aspects of the novel and the writer's sense of the age that is revealed through 'Love story', focusing on the 『Raging Waves』 that is representative of Jang Duk-jo's popular love novel. 'Han Eun-joo' is the heroine of a common love story in terms of purity and morality, but she takes precedence over realistic 'intelligence' in love. She governs her passion to choose the smartness of grasping her position as a female college student and head of the family and the love that can be the foundation of self-construction. This is a realistic and rational attitude of life that is not imbued with romantic love. 'Park Chang-ryul' is a middle-aged aesthetic who hates being clean-hearted and ugly and is a new male character. From the rational love of 'Han Eun-joo', who endured the pain of poverty but insisted on self-construction, and the mature love of 'Park Chang-ryul', who encouraged and championed his life mentally and materially, a new and developed love is possible.

However, 『Raging Waves』 stresses that love must be true to justify it. It is not the sexual desire of a middle-aged man for youth based on the affluence of matter, but the admiration and unity of each other's mental elements should precede. Jang Duk-jo's novel is the only one in which the thought of linking

affection to substance is so proudly expressed in this time.

Although 『Raging Waves』 embodies love novels that were rarely seen at the time by presenting new human images and love views, the novel is faithful to the formula of popular love novels in that it should follow the moral ethics presented by society. Park Chang-ryul's 'traditional Korean character' trying to escape from falsehood and depravity, and the love he gets from killing himself gains value as a religious belief. By the middle of the novel, the unique aspect of love gained by the novel turns into a common ending, resulting in the traditional value of popular love novels and humanism that makes even the wicked repent by throwing me.

Key words : Raging Waves, Jang Duk-jo, 1950s customs, patron, apres-girl

■ 본 논문은 2019년 7월 10일에 접수되어 2019년 7월 16일부터 8월 1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9년 8월 19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